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수신	박영숙 이사장님 귀하
발신	Fax [REDACTED]
(담당자)	Tel. [REDACTED]
발신일	(대리 최선아)
제 목	2006년 12월 8일(금)
요청사항	시민센터설립추진위원회 후원의 밤 행사 관련 격려사 원고 요청의 건 이사장님, 아래와 같이 격려사 및 원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사명: 시민센터설립추진위원회 후원의 밤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오후 6시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 -요청사항: 3-4분의 격려사 원고 -원고분량: A4 2/3~1장(글자크기 10) -마 감 일: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9시30분까지 -원고전달방법: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최선아 대리에게 전화주시거나, 시민사 회단체연대회의 박홍근 사무처장([REDACTED])에게 직접 전달 -원고는 당일 행사안내지 게재 예정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격려사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자료 리 스트 및 내용요약	- 한국의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그 정점으로 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인적 자원 및 재정 자립의 측면에서는 그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도전 받고 있는 상황임. - 시민운동의 쇠퇴 또는 위기적 상황에는 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른 제도 정치의 정상화 추세, 경제주의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보수화, 이념적 분화와 다원화 에 따른 보수단체의 출현 경쟁 등의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시민운동 스스로 체질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결과(중앙단체와 지역단체의 활동환경 격차 심화, 활동가의 재생산 및 성장 구조 난관, 리더십 및 연대역사의 약화, 실천적 대안성의 미흡, 시민참여의 비활성화 등)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 동안 시민운동이 사회개혁 및 분야별 의제 중심의 현안에 힘을 쏟으면서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으나 위기적 징후가 표출되는 현 시점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한국 시민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든든한 진지를 다양하게 구축해 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기단체나 소속지역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체 시민운동 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우선 시민운동 내부의 폭넓은 동의와 동역 형성만으로도 타개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풀뿌리운동을 위시하여 시민단체와 활동가의 육성 및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될 것임. <시민센터소개 및 설립추진위원회활동안내>, <추진위원회현황보고자료> 각 1부, 끝.
총매수	총 7매 (표지포함)

후원의밤 행사 진행순서

17:30~18:00	접수	방명, 명함 접수	연대회의
		기부금, 약정서 접수	아름다운재단
	안내	좌석 안내	집행위원장단
		행사 순서 안내	
	의전	귀빈 안내, 의전	대표단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자
18:00~18:01	사회자 인사	오프닝 멘트, 사회자 인사	지금중
18:01~18:04	인사 말씀	강지원 상임공동대표	강지원
18:04~18:12	격려 말씀	임채정 국회의장	임채정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18:12~18:15	참석자 소개	행사 참석자 소개	김제남
18:15~18:20	비전 발표	추진위 사업계획 비전 발표(영상 I)	지금중
		고문-대표단 호명, 자리에서 인사	지금중
18:20~18:25	시민센터 題字 증정	신영복 교수님 영상 메시지(영상 II)	지금중
		시민센터 題字 증정	지금중
18:25~18:40	후원자 소개	사전 후원자-약정자 소개 영상(영상 III)	지금중
	후원 약정식	후원 기념 Donr's Wall 제작 안내	지금중
		장미와 약정서 나누어 드리기	고문, 대표
		참석자, 후원 약정서 기재하기	참석자
		약정서 기재하는 참석자 소개	지금중
		은쟁반으로 후원 약정서 받기	고문, 대표
		은쟁반 들고 무대에 서기	고문, 대표
		각 은쟁반에서 고른 약정서, 메시지 소개	고문, 대표
		고액 후원자 소개	지금중
		감사와 격려의 박수	지금중
18:40~18:50	축하 공연	강은영 재즈 공연 - Over the rainbow 등	강은영
18:50~19:55	만찬	박상증, 이종근 고문 건배 말씀	박상증, 이종근
		만찬, 담소	
	영상 상영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 (영상 IV)	지금중
19:55~20:00	감사 말씀	이학영 상임공동대표 감사 말씀	대표단

시민센터 소개 및 설립추진위원회 활동 안내

I. 시민센터 소개

○ 필요성

- 시민의 건강한 만남과 사회참여를 돕는
- 풀뿌리공익단체의 운영과 설립을 돕는
- 활동가와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을 돕는
-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돕는

시민센터
||
공 간
&
프로그램



활 기 넘 치 는
지 역 사 회
공 동 체 의
실 현

○ 주요기능

- 공간 지원 : 지역 내 주민모임을 위한 공간(회의실·교육실·인쇄작업실·강당·사서함·전사실 등) 제공, 소규모 시민단체의 적정기간 입주(인큐베이터)를 통한 자립 지원
- 교육 지원 :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대상의 수준별 직무능력 및 이론 교육 실시, 강연회·토론회·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지역사회 시민교육 프로그램 유치
- 상담 지원 : 신규단체 설립 자문 및 기존단체 참여 안내, 법률·건강·생활 등 시민무료상담서비스 가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상담 실시
- 정보 지원 : 지역 내 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과 발간 자료 배치, 지역 내 NGO의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온라인 정보 제공

○ 설립방법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방식(①공공건물의 일부 위탁 또는 개방 ②소재 대학 및 기업의 공간 활용 ③시민사회 자체적으로 마련 등)으로 적정한 공간 확보
- 관련법의 지원 근거조항 신설 및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동시 추진
-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역주체(지역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

○ 해외사례

- 일본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제정 이후 센다이시민활동지원센터, 플라자인오야 등 전국 200개 이상의 중간지원단위(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 영국·프랑스·호주 : 시청사·학교시설 등 공공건물을 개방하여 시민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지역사회 NGO가 공동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입주 활동

II. 설립추진위원회 활동 안내

□ 활동방향

- ① 시민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모델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추진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며, 지역시민센터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한국시민센터의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② 민간공익법인인 가칭 풀뿌리시민재단을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시민센터와 지역재단(Community-Foundation)의 설립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풀뿌리운동 활성화와 시민사회 인적자원의 육성에 기여

□ 주요사업

○ 가칭 풀뿌리시민재단 설립

- 풀뿌리 공익활동(프로그램·인적자원·인프라)을 지원하는 민간공익재단 설립
- 독립적 운영구조 지속적 모금 활동 전개 및 배분위원 과반수 지역인사로 구성

○ 지역시민센터 설립 지원

- 시민센터 기본프로그램(시민교육·활동기교육·주민자치 등) 기획 및 공적 공간 정책 연구
- 시민센터 관련 법 개정 또는 제정 및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촉구
- 시민센터의 지역모델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한 전국적 확산

○ 지역재단 설립 지원

-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을 확장하는 Community-Foundation 설립 지원
- 지역시민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주요한 목적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추동
- 지역별 자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과 풀뿌리시민재단과의 일상적 협력관계 유지

□ 보조사업

○ 한국시민센터 설립 준비

- 필요성, 주요기능, 설립계획,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전국적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부지확보 및 서울의 이전공공시설이나 유휴시설 활용가능성 타진

○ NPO영역과의 협력 활동

-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NGO와 NPO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토론회, 입법활동, 정책건의 등)

보고사항 1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위상 및 창립

- 위 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설 특별활동기구
- 창립일 : 2006년 4월 28일

○ 설립위원

- 단체 : 182개
- 개인 : 440명

○ 임원

- 공동대표 : 현재 25인 위촉(상임공동대표 3인 포함)
- 공동집행위원장 : 현재 20인 위촉(상임공동집행위원장 3인 포함)
- ※ 고문단 : 현재 28인 위촉(명예고문 3인, 상임고문 9인 포함)

○ 기획위원회

- 현재 15인 위촉(위원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 총 5차 회의 개최, 시민센터 기능 및 프로그램 기획·연구

○ 사무처

- 현재 2인 근무
- 업무량 및 재정 형편에 따라 추가 채용 예정

지역시민센터 설립 지원 활동

□ 지역별 추진현황

- 광역 단위의 추진단위 대부분(7~8개)이 지역(시민)재단의 설립을 우선하되, 그 목적사업으로 시민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재단과 센터를 동시적으로 설립하는 방향에서 지역 연대회의 차원의 기본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광주와 부산 등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타진 중에 있음.
- 올해 상반기부터 거론된 희망제작소의 지역재단 관련 지원기금이 최근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추진주체들은 설립 초기 재원에 대한 전국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기획

- 상반기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위원별 역할분담을 기본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시민센터에 대한 콘텐츠 제공과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가능성 높은 1~2개 지역(광주나 부산)에서 실질적 사례를 창출하도록 집중 지원(해당지역과의 전략협의, 중앙정부의 교부금 요청 등)하거나 서울의 주요기업을 통해 적정한 공간(예; 광화문 KT의 T샵)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추진

-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근거 법령의 문제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거론되고 있으므로 조직적으로는 법제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자 함.
- 시민센터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국회 계류 중인 '민간공익활동지원법'을 수정 발의하거나 현재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국무총리 면담 추진 및 관계부처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재단법인 설립 추진 활동

□ 재단법인 설립 관련 논의 장기화

- 추진위원회 준비 및 창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공익재단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가칭 시민재단(초기에는 NGO재단)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됨.
- 그 후 6월에 개최된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공동대표단회의)에서는 “재단의 성격과 기능이 한국시민센터의 관리·운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금의 지속적 조성을 통해서 지역시민사회(NGO·센터·재단 등)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한국시민재단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토의하고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는 상임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 가칭 한국시민재단 설립에 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7월 초순과 8월 하순의 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9월 시민운동가대회에서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업적 위임 범위의 인식 차이와 시민재단 설립 시 나설 수 있는 문제점(과도대표성, 모금독점성, 운영책임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를 원점에서 접근해 가기로 함.

□ 가칭 풀뿌리시민재단 설립 논의 본격화

-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재단법인의 필요성은 공감되었고 그 명칭과 목적사업을 보다 분명히 해서 설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시민재단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부담을 덜고 풀뿌리운동 지원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경우 연대회의 내부에서도 동의와 추진동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풀뿌리운동 지원, 시민사회 인재육성, 한국시민센터 운영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가칭 풀뿌리시민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조속히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립 준비를 통해서 2007년도 초반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의 우선적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명의의 12월 12일(화)에 모금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한국시민센터 설립 준비 활동

□ 중장기적 추진에 따른 단계적 준비

- 각 지역시민센터가 어느 정도 설립된 후 이를 전국 차원에서 네트워킹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전국 시민활동가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한국시민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옴.
- 그러나 현실적인 기회나 사업적인 요구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적절한 수준에서는 기획 및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부지 확보 추진

- 2012년 입주 예정인 충남 연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 금년 중으로 완료됨에 따라 지역단체들의 의견수렴 속에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그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부지(1,000평)를 무상 또는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안하였고 이를 건설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위의 행정도시의 경우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시민센터의 특성상 여러 곳에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지역의 공공시설 중 이전기관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기능적 한국시민센터 우선 설립 검토

- 위의 완결적인 한국시민센터 설립 이전에는 재단법인의 초기자원 조성을 통해 소규모 공간이라도 확보하여 이를 연대회의 부설의 과도적인 한국시민센터로 해서 사업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러한 방향으로 기능 중심의 과도적인 한국시민센터가 설립되면 연대회의가 현재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교육·훈련과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연대회의와 협의할 예정임.